

夫婦간의 地位不調和와 葛藤解決方法에 관한 研究*

A Study on Status Incompatibility and Marital Conflict Resolution Method

群山大學 家政學科

副教授 : 李 英 淑

Dept. of Home Economics

Kunsan College

Associate Prof. : Yeong Sug Yi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1. 갈등해결방법
1. 갈등해결방법	2. 부간의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
2.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	3. 지위상향지향성에 따른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과의 관계
III. 연구방법	V. 요약 및 결론
1. 조사도구	참고문헌
2. 조사대상	
3. 자료수집과 처리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status incompatibility and the ways of dealing with marital conflict.

Research was conducted by interview using questionnaire on 177 employed wives.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age, t-test, chi-square test.

1) In resolving marital conflict four types of method are appered, namely constructive method, passive method, evasion and physical violence.

2) Only physical violence of husband-to-wife of the four methods is related to status incompatibility. That is, the incidence rate of physical violence of husband-to-wife in incompatible couples is higher than that of compatible couples in conflict situations.

*본 研究는 1989년도 文敎部 學術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3) In case the wife's occupational status is high relative to her husband the incidence rate of physical violence of husband-to-wife is extremely high, but is significantly low in couples which are compatible in this status.

4) In case wife's status advancement is controlled,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tatus incompatibility and the method of conflict resolution by husband whose wife is status striver.

I. 問題의提起

전통적 한국 가정의 중추적인 관계가 父子關係였다면 현대가족에서는 夫婦關係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男性과 女性이라는 性別로 夫婦關係의 優劣이 決定되었던 것이 전통가족의 특성이었다면 현대가족에서는 이러한 性別이 더이상 夫婦關係의 優劣을 決定짓는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

夫婦關係를 중시하는 가족에서는 夫婦 당사자의 개인적인 특성 및 이들의 조합이 가지는 특성이 그 가족 전체의 성격을 左右하게 된다. 현대가족에서 夫婦關係를 변모하게 하는데 중요한 役割을 한 개인적인 특성중의 하나는 夫婦 各自의 社會的地位이다. 즉 개인의 社會的地位는 社會에서 개인의 서열을 결정해줄 뿐만 아니라 家庭內 夫婦간의 地位關係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既存의 優劣과는 다른 夫婦關係를 形成하는 현대 가정에서는 社會的地位가 夫婦關係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부인이 就業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부인이 就業으로 所得이 생기고 일정한 地位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餘他 家庭의 夫婦關係보다 社會的地位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夫婦는 거의 모두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서로 依存하는 관계이면서도 서로 차이나는 背景 및 性役割 때문에 그들간의 葛藤은 그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불가피한 것으로서 인정되고 있다(Jones & Gallois 1989, 957).

더구나 결혼은 전통적으로 社會階層이 유사한 背景을 지닌 사람들끼리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社會階層이 유사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더욱 적응이 어려워 葛藤이 빈번하다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家庭生活을 이루기 위해서는 葛藤의 정도도 문제려니와 이러한 葛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하는 葛藤解決方法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갈등이 있을 경우 그 葛藤이 바람직한 方法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夫婦가 不和를 겪으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그 夫婦關係가 해체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은 직접적으로 夫婦 各自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속한 社會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社會의 안정, 건전한 가정의 형성, 자녀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夫婦간의 葛藤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분야 연구들은 夫婦간의 社會階層상의 차이가 결혼 후 夫婦關係에 얼마나 葛藤을 가져오는지 또는 그 결과 그 결혼의 안정성이 어떠한지 등에 주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夫婦간에 발생한 葛藤의 解決方法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1970년대 이후 시작된 부인학대를 포함한 家庭暴力에 대한 연구는 초기 기술적 단계를 벗어나 婦人虐待의 원인 규명을 위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夫婦간의 지위관계와 가정폭력을 관련시킨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사실 부부간의 지위관계의 불평등은 그 자체가 葛藤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 그것이 暴力으로 이끌어질 수 있기 때문에(Dobash & Dobash 1979)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葛藤解決方法과의 관계는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들은 夫婦간의 지위가 평등할 때는 불평등할 때에 비해 신체적 부인학대가 빈번하다는 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葛藤解決方法 중의 一部分인 暴力

과의 관계를 주로 밝혀주고있어 바람직한 부부간의 葛藤解決方法에 대해 시사해 주는 점은 있으나 부부간의 葛藤解決方法의 類型을 완전히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지위관계를 平等, 不平等으로 분류해 婦人虐待와 관련시켜 본 연구들이 시도한 이러한 분류의 결과는 남편의 지위와 부인의 지위가 이루는 조합이 얼마나 調和를 잘 이루느냐 여부와는 차이가 있다. 즉 부부간의 지위관계의 調和여부는 그 사회에서 부부의 어떤 조합을 조화롭게 여기느냐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사회에 따라서 상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의 적응의 일면을 살펴보려는 葛藤解決方法과 관련지을 때는 平等, 不平等의 분류보다 調和, 不調和의 분류가 더 의미있을 것이다. 또한 就業主婦 가정의 부부관계는 부인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영향이 비취업 주부 가정의 부부관계에서보다 큰 점을 고려할 때 부부간의 지위의 비교를 社會的地位로 직접 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결과가 부부가 지위를 社會的 지위가 아닌 권력관계등으로 측정 한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設定한 研究問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간의 葛藤解決方法에는 어떤 類型이 있는가?

둘째, 사회적 지위에 의한 부부간의 지위 調和 여부에 따라 葛藤解決方法은 어떻게 다른가?

셋째, 地位不調和와 葛藤解決方法의 關係는 地位上向지향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II. 이론적 배경

1. 葛藤解決方法

葛藤은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葛藤을 다루는 研究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친밀성

자체가 葛藤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며(Stinnett, Walters & Kaye 1984, 196) 葛藤을 다루는 방법들은 個人 또는 夫婦에 따라 유형화되어 있어 한번 사용되면 비교적 일관성있게 계속 사용되어 지는 경향을 띠고 있음(Jorgensen 1986, 213)을 고려할 때, 부부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葛藤解決方法을 발견하는 것이 만족스런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葛藤解決方法이란 일단 葛藤이 발생된 이후 그들간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데 조용하고 이성적인 토론에서부터 적대감있는 暴力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나 이에 대한 研究는 주로 심한 육체적 攻擊-暴力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1970년대 이전까지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 분야의 연구가 70년대 이후 부인에 대한 남편의 暴力 문제를 우선적으로 문제시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전체 부부중 10~15%가 配偶者에 의한 暴力 위협을 받고 있으며 모든 殺人 사건의 15% 이상이 配偶者에 의한 것이라든지, 매 30초 마다 1건씩 부인 구타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報告(Jorgensen 1986, 213)는 暴力이 부부간의 葛藤을 다루는 무시할 수 없는 방법 중의 하나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暴力에 의한 葛藤解決方法은 모두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害를 끼칠 뿐 아니라 夫婦의 關係를 더욱 不滿足스럽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부부간의 葛藤解決方法에는 暴力 外에 또 어떠한 것이 있나를 알아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葛藤을 다루는 방법들은 그 測定이 매우 곤란하여 그 척도도 Straus(1979)의 尺度가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研究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尺度는 言爭과 暴力등 주로 파괴적인 방법을 測定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尺度를 사용하여 행해진 지금까지의 研究들은 대부분 모두 葛藤을 부정적인 면으로 解決하는 方法에만 치중하여 연구되었다. 국내에서도 이 경향은 뚜렷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虐待, 暴力이라는 이름으로 葛藤解決方法의 일부를 다루고 있으며(김경화 1985; 김정옥 1985, 87; 양은희 1985; 이영숙 1984, 86; 전춘애 1989), 몇 편의 연구(이명교 1985; 김

양희 1986; 송영자 1986)에서 破壞的方法 이외의 것을 다루고 있으나 미미하다.

2. 地位不調和와 葛藤解決方法

가정에서 남편 또는 부인의 지위는 그 配偶者와의 關係에서 정해지는 상대적 위치로 전통가족에서는 男便이 婦人보다 優越한 지위를 占하고 있었고 그것이 당연시 되었었다.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정의 변화 및 개인의 의식구조의 변화는 夫婦의 地位關係가 男女라는 性에 의해서만 정해지지 않는으며, 또한 그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게 바뀌었다. 즉 전통 가족에서는 부부가 垂直關係를 이루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現代社會의 男女平等思想, 여성에 대한 高等教育 機會의 增加, 個人主義의 傾向 등은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既婚 女性의 就業은 기존의 부부관계를 변화시켜 주었다. 夫婦關係의 변화는 주로 婦人의 地位가 상승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랫동안 優越한 지위를 占有하고 있었던 남편은 그 유리한 지위를 스스로 쉽게 포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남편의 적응이 필요하게 된다.

남편 혹은 부인 등 부부 중 일인이 가진 특성이 그 配偶者와의 특성과 이루는 조합이 그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부부간의 지위관계의 調和, 不調和를 分類한다면 地位不調和란 개념은 이와 같은 여건을 가진 현대 가족에서 더 빈번히 거론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부인이 職業을 가진 가정에서는 부인의 社會的 地位가 男便과의 地位關係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부부의 社會的 地位의 조합에 따라 地位 調和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 있을 것이다.

부부간의 지위관계는 地位不調和 외에도 地位不平等(Pearlin 1975), 地位不一致(Hornung & McCullough 1981), 異質結婚(Jorgensen 1977)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이 研究들은 夫婦의 社會的 地位가 가정 內의 지위도 결정한다는 假定하에 부부의 社會的 地位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본 연구와, 權力 所有量을 지위를 측정하는 한 방식으로 보고 그것의 다소로

부부간의 지위의 조합을 살펴 본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Brien(1971)은 남편의 직업과 丈人의 職業 地位를 비교하여 남편의 것이 장인의 그것보다 못할 때를 地位不一致라고 하였는데 그 가정은 남편이 부인에 대해 暴力을 행사하는 가정이 된다고 함을 밝히고, Pearlin(1975)은 부부 각자의 父의 職業을 비교하여 이 差異가 크면 그 부부는 지위가 不平等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結婚은 情緒的 緊張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婦人의 地位와 男便의 地位를 직접 비교하는 대신 그들의 父의 지위를 비교함으로써 Hornung과 그의 동료들(1981a, 1981b)의 婦人의 地位와 男便의 地位를 직접 비교해보는 방법과 차이를 보여 주었다. Hornung과 그의 동료들은 夫婦 各自의 地位가 家庭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 결혼 생활의 심리적인 면의 영향(1981a)과 配偶者 虐待에 주는 영향(1981b)을 직접 남편과 부인의 學歷, 職業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조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의 지위가 배우자의 특성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를 地位不調和라고 命名하여 地位調和群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부인의 직업이 그 配偶者의 것과 調和를 이루지 못할 때 부인에 대한 극심한 暴力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부부간의 교육수준과 직업 지위상의 不調和는 配偶者 虐待에 심한 위험성을 지닌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부부 각자의 지위나 背景이 걸맞지 않을 때 결혼 생활에 긴장 또는 虐待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들과는 달리 Pearlin(1975)은 결혼 생활에 緊張 등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부부간의 지위의 不平等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Jorgensen(1977)은 결혼으로 지위 상승을 구하는 부인의 경우에서만 이것이 지지됨을 밝혔다.

다음에 지위에 부수적인 권력 소유량에 따라 葛藤解決方法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 본 연구들은 다른 자원이 부족할 때 虐待 또는 暴力도 권력의 기초가 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자원이론을 기초로 이루어졌다(Goode 1971). 이러한 연구들이

밝힌 결론은 부인의 권력이 적을수록 폭력을 행하는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유지된다는 주장(Gelles 1976)과 지배적인 부인의 가정에서 婦人虐待가 발생한다는 주장(Snell 1964)등 暴力과 權力과의 유관성을 주장한 연구와 부부간의 권력관계와 虐待는 관계가 없거나 혹은 미미하나 남편이 가진 자원이 미미할때만 그 관련성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관계는 하류계층에서만 해당된다는 주장(Kumagai & O'donghue 1978; Straus & Hotaling 1980;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들로 일관성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 분야의 연구는 극소수에 한하는데 이들 연구들도 지위관계를 권력 소유량으로, 葛藤解決方法을 暴力이나 虐待로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다. 이영숙(1986)은 권력이 부인이나 남편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을 때 부인학대가 빈번하며 또 심하게 나타난다고 했으며 이 경향은 부인지배형일 때 더 심하다고 했고 전춘애(1989)도 부부권력 유형이 남편지배형이거나 부인지배형일 때 남편은 부인에게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많이 행한다고 밝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근 지위관계를 지위에 대한 지각, 교육 수준의 차이등으로 측정하고, 폭력이나 虐待 이외의 解決方法을 다루는 등 폭넓게 연구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暴力이나 虐待 이외의 葛藤解決方法으로 이명교(1985)와 김정옥(1985)은 언쟁, 의논을 김양희(1986)는 服從, 合意, 협박, 회피 등을 그리고 송영자(1986)는 이성적 방법, 말다툼을 다루고 있으나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이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관련지어 다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와는 다소 시각에 차이가 있다. 다만 이명교(1985)는 부부 중 1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때 언쟁 및 暴力이 심하다고 했으나 의논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밝혀 주었다. 또한 권력관계 이외의 지위관계를 학력 차이와 직업의 우위성으로 살펴본 김정옥(1985)은 의논이나 언쟁은 부부간의 학력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暴力은 부인의 學歷이 우세할 때 가장 빈번하나 직업차에 의해서는 暴力조차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김경화(1985)는 부부 學歷차이에 따라 아내 학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영숙(1986)은 지위관계를 지위지각으로 살펴보아서 남편이나 부인의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婦人虐待가 빈번하며 또 심하게 나타난다고 했으며 이 경향은 부인의 지위가 높을 때 더 심하다고 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남편과 부인의 지위의 차이가 葛藤解決시 취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지위를 사회적인 지위로 비교해 보아 그것이 葛藤解決方法에 주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없다. 따라서 주부가 취업한 가정에서는 主婦의 社會的 地位가 부부간의 지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지위관계를 사회적 지위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葛藤解決方法을 類型별로 나누어 볼 필요도 있겠다.

III. 研究 方法

1. 調查 道具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질문지로서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독립 변수인 부부 각자의 직업, 학력, 수입, 지위상향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그리고 종속변수인 葛藤解決方法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척도의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地位不調和

부부간의 지위부조화 또는 조화는 남편과 부인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각자의 직업 지위, 학력, 수입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는데 직업지위는 홍두승(1983)의 직업 분류를 토대로 지수화하여 비교했고, 학력과 수입은 각각 교육받은 기간(년), 한달 수입(원)을 단위로 비교하였다. 조사대상 전체 남편과 부인의 직업지위, 학력, 수입을 각각 계산하여 한 개인의 지위를 그 배우자의 지위와 비교하여 전체대상부부 중의 중앙 50%를 地位調和 부부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범위의 위 아래 25%를 각각 男優位父調和類型과 婦

人優位不調和類型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不調和類型은 職業, 學歷, 收入別 각각 두가지 유형이 있어 모두 여섯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男便優位 不調和 類型(不調和 1): 부인의 지위에 대한 남편의 지위가 전체 중 위 25%에 해당될 때
 婦人優位 不調和 類型(不調和 2): 부인의 지위에 대한 남편의 지위가 전체 중 아래 25%에 해당될 때

표 1-1. 남편의 갈등해결방법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신체적폭력)	요인 2 (건설적방법)	요인 3 (회피)	요인 4 (수동적방법)	Communality
1. 약점을 잡아 비난한다	.53	-.29	.10	.31	.48
2. 나가버린다	.49	-.12	.22	.09	.31
3. 소리지르거나 욕을 한다	.78	-.13	.12	.05	.65
4. 악의 있는말, 행동을 한다	.81	-.14	.10	.10	.69
5.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부순다	.81	-.00	.04	.00	.66
6. 때리려고 위협한다	.91	.03	-.08	-.00	.84
7. 때밀거나 움켜잡는다	.90	-.05	-.00	.06	.81
8. 때린다	.85	-.02	-.02	.04	.73
9. 흥기로 위협하거나 상해한다	.73	.07	-.12	.02	.56
10.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03	.42	.21	.28	.30
11. 부인의 견해를 이해하려고 한다	-.17	.64	.08	-.02	.46
12.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	-.08	.69	.03	-.06	.49
13. 변화 하겠다고 약속한다	.04	.64	.04	.20	.46
14. 서로 타협한다	-.04	.78	.06	-.08	.63
15.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14	-.07	.75	.05	.59
16. 그 문제를 피한다	.15	.09	.70	-.21	.58
17. 농담등을한다	-.13	.25	.57	.15	.43
18. 본심과 다른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22	-.01	.49	.33	.40
19. 시간이 지마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14	-.00	-.04	.79	.66
20. 다른 일에 몰두한다	.03	.42	.32	.51	.55
21. 참는다	.15	.25	.32	.02	.27
Eigenvalue	5.77	3.05	1.71	1.11	
Pct. of Var.	27.5	14.5	8.1	5.3	55.4

주) θ 를 구하는 공식은 $\theta(N/N-1) (1-1/\lambda_1)$ 을 사용하였다.

N=문항의 수

λ_1 =Eigln value 최대치

2) 地位상향지향성

地位상향지향성은 주로 結婚生活의 地位와 관련된 7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일정 地位 이상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강한 긍정에서부터 강한 부정까지 5단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7점에서 35점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중앙치 26.5를 地位 상향지

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았다.

3) 葛藤解決方法

부부간의 葛藤解決方法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의 CTS(Conflict Tactics Scale) 척도를 수정하여

표 1-2. 부인의 갈등해결방법의 요인분석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Communality
	(신체적폭력)	(건설적방법)	(회 피)	(수동적방법)	
1.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순다	.46	.46	.05	.36	.55
2. 때리려고 위협한다	.82	.27	.07	.26	.83
3. 때밀거나 움켜잡는다	.69	.38	.01	.08	.63
4. 때린다	.82	.12	.01	.04	.69
5. 흥기로 위협하거나 상해한다	.87	-.03	.00	.14	.78
6.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09	.53	.05	.05	.30
7. 참는다	-.11	.66	.58	.08	.47
8. 다른일에 몰두한다	.18	.83	.48	.04	.39
9.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13	-.11	.50	.29	.36
10. 남편의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05	-.39	.50	.23	.47
11.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	-.05	-.05	.60	.14	.39
12. 변화하겠다고 약속 한다	.22	.15	.65	-.13	.52
13. 서로 타협한다	-.07	-.08	.78	.04	.62
14.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07	.08	.16	.53	.32
15. 그 문제를 피한다	.14	.02	.09	.73	.56
16. 농담등을 한다	.01	.14	.21	.58	.40
17. 나가 버린다	.26	.13	-.13	.56	.43
18. 본심과 다른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29	.40	.20	.18	.32
19. 약점잡아 비난한다	.06	.33	-.02	.01	.70
20. 소리를 지르거나 욕한다	.31	.36	.02	.27	.61
21. 악의있는 말, 행동을 한다	.21	.25	-.00	.11	.62
Eigenvalue	5.42	2.65	1.68	1.31	
Pct. of Var.	25.8	12.6	8.0	6.2	52.7

사용한 이영숙(1986)의 연구와 기초조사를 참고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은 男便의 婦人에 대한 것과 婦人의 男便에 대한 것 각 21문항인데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尺度로 조사하여 그 結果를 要因 分析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척도로서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要因 分析 結果 男便의 婦人에 대한 것은 1문항, 婦人의 男便에 대한 것은 4문항을 제외하고 변수로 채택할 수 있었으며 신뢰도(θ)는²⁾ 0.87(남편), 0.86(부인)으로서 신뢰할만한 척도로 볼 수 있었다.

결국 夫婦간의 葛藤解決方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건설적 方法, 수동적 方法, 回避, 身體的 폭력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표 1-1, 표 1-2 참조).

2. 調査對象

調査對象은 子女가 있고 夫婦가 동기하는 軍山 시와 全州市의 收入을 가진 就業主婦로서 직종을 안배하여 190명을 조사하였으나 조사 結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13부를 제외하고 17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婦人의 연령은 20대 19.8%, 30대 55.9%, 40대 21.5%, 50대 2.8%로서 30대와 40대가 주로 조사되었으며 성장지는 대도시 7.3%, 중소도시 54.8%, 읍면지역 37.9%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선택은 자유혼 54.8%, 중매혼 28.3%, 절충혼 16.9%이고, 평균 자녀수는 2.18명, 평균결혼기간은 11.75년으로 나타났다. 婦人의 職業은 직종을 按配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노동직에서 전문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男便과 婦人의 職業을 비교해보니 동일한 職業地位를 가진 夫婦 21.5%, 男便의

職業地位가 婦人의 職業地位보다 높은 夫婦 52.9%, 男便의 職業地位가 婦人의 職業地位보다 낮은 夫婦 25.6%로서 나타나 職業地位調和여부로 분류할 때 職業地位 調和 유형에 동일한 職業地位를 가진 夫婦와 男便의 職業地位가 婦人의 職業地位보다 높은 夫婦 일부도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學歷과 收入에서도 나타나서 男便의 學歷 또는 收入이 婦人이 그것과 동일한 夫婦는 35.0%, 26.0%로서 나타나 地位調和부부유형에 동일한 學歷 또는 收入을 가진 夫婦 외에 男便이 婦人보다 學歷 또는 收入이 높은 夫婦 일부도 포함시키게 되었다.

2. 資料 募集과 處理

본 연구는 1989년 9월 1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병행하여 조사한 이유는 본 研究의 조사 내용이 婦人 또는 男便을 직접 만나 면접조사하는 것이 사실대로의 보고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초조사 結果 확인하였으나 본 研究의 질문내용의 성질상 본인이 기재토록하는 질문지에 의한 조사방법은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무성의한 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아 실제 분석에 이용되지 못함도 고려하여 社會的 地位를 상세히 조사하여야만 하는 본 研究는 職業, 學歷, 收入등은 면접법을 통하여 자세히 조사했으며 기타 항목은 주로 질문지법에 의해 조사하였고 질문지 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에게는 전항목을 면접법으로 조사하였다. 資料處理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표 2. 남편과 부인의 갈등해결방법 비교

	건설적방법		수동적방법		회 피		폭 력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무	0.6(1)	0.6(1)	7.1(12)	7.0(12)	8.4(14)	37.5(66)	22.4(39)	67.0(118)
낮음	3.4(6)	2.9(5)	69.0(122)	62.2(110)	33.2(55)	47.7(84)	61.5(105)	27.9(49)
높음	96.0(170)	96.5(170)	23.9(43)	30.8(55)	58.4(108)	14.8(27)	16.1(33)	5.1(10)
합	100.0(177)	100.0(177)	100.0(177)	100.0(177)	100.0(177)	100.0(177)	100.0(177)	100.0(177)

IV. 資料分析 및 處理

1. 葛藤解決方法

조사대상자의 葛藤解決方法을 要因分析을 통해서 分析한 結果 건설적 方法, 수동적 方法, 回避, 身體的 暴力으로 나타남을 앞에서 보았다(표 1-1, 표 1-2).

전체적으로 볼 때 葛藤處理過程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方法은 표 2에서 보듯이 建設적 方法으로 나타났고 반면 身體的 暴力은 가장 사용빈도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조사 도구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한국 도시 지역 夫婦는 葛藤 표출시 의논이 가장 많고 폭력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는 이전 研究들의 結果(김정옥 1985; 이명교 1985)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우리 社會뿐 아니라 다른 社會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 극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길 수 있다. 즉 態谷文枝(1979)는 日本, 印度, 美國의 夫婦들의 葛藤解決過程을 조사한 結果 討論(reasoning)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暴力(violence)이 가장 적게 사용되는 현상이 3개국 공통적임을 밝혀내었다.

葛藤解決方法이 그 類型에 따라 夫婦간에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 보면, 먼저 建設的 方法은 夫婦 모두 빈번히 사용하고 있었으며 男便과 婦人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본인이 특별히 어떠한 行動을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히 葛藤이 해결되게 하는 方式인 수동적 方法도 夫婦 모두에게 建設적 方法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方法이었다. 한편 葛藤解決 時 男便과 婦人이 사용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은 回避와 신체적 暴力 등 破壞的 方法이었다. 대다수의 婦人들은 이러한 方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중 특히 身體的 暴力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비율이 더 높았고 반면 男便은 婦人보다 回避的 方法이나 身體的 暴力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며 심한 身體的 暴力은 婦人보다 세배나 넘게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婦人에 대한 男便의 身

體的 虐待가 男便에 대한 婦人의 身體的 虐待보다 높다는 종래의 研究結果(Martin 1976; Ball 1977; Dobash & Dobash 1977-78; 이영숙 1984; 전춘애 1989)와 일치한다. 다만 이전 研究 結果들 중에서 男便에 대한 身體的 虐待와 婦人에 대한 身體的 虐待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보고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Brutz & Ingoldsby 1984; 이영숙 1986).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 때문에 생긴 차이로 보인다. 즉 男便과 婦人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본인의 經驗을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을 때와 夫婦간에 발생된 사건을 자녀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男便이 경험한 身體的 虐待를 婦人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제삼자가 대신 보고한 結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男便虐待는 男便 본인의 응답이 제삼자에 의한 응답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夫婦간의 暴力에 대해 男便은 夫婦 상호간에 暴力이 일어 난다고 보나 婦人은 男便이 더 暴力的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Browning & Dutton 1986; Eldleson & Brygger 1986).

2. 夫婦간의 지위不調和와 葛藤解決方法

1) 夫婦간의 지위 調和여부와 葛藤解決方法

夫婦간의 葛藤解決方法이 그들의 地位의 調和 또는 不調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본 結果 직업지위의 조화 여부에 따라 男便의 婦人에 대한 暴力만이 그 차이가 有意함을 보여 주었다(표 3 참조). 즉 職業地位가 調和를 이루는 夫婦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暴力이 적고($\bar{X} = 3.81$)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夫婦의 경우는 남편이 부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暴力이 많음($\bar{X} = 6.00$)을 볼 수 있다. 이것은 夫婦의 직업지위의 조화를 다른 夫婦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편적이지 못한 경우[不調和]는 보편적인 경우[調和]보다 男便이 받는 긴장이 커서 葛藤이 생겼을 때 建設적인 方法보다는 暴力에 依存하기 때문일 것이다.

男便의 婦人에 대한 暴力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方法도 地位調和 여부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夫婦간의 지위관계와 관련지어서 부인학대 특히 신체적 婦人虐待(또는 暴力)

표 3. 부부간의 지위조화 여부에 따른 갈등해결방법의 t검증 결과

			조화		부조화		t
			Mean	SD	Mean	SD	
남 편	직 업	건설적방법	11.69	3.38	11.90	3.66	0.38
		수동적방법	1.77	1.62	1.64	1.64	0.52
		회 피	5.62	3.05	5.02	3.08	1.23
		폭 력	3.81	5.82	6.00	6.59	2.24*
	학 력	건설적방법	12.13	3.02	11.68	3.76	0.77
		수동적방법	1.61	1.55	1.73	1.67	0.44
		회 피	5.37	2.95	5.21	3.15	0.33
		폭 력	4.46	5.31	5.43	6.79	0.93
	수 입	건설적방법	11.77	3.36	11.68	3.76	0.13
		수동적방법	1.66	1.59	1.70	1.66	0.17
		회 피	5.35	2.73	5.20	3.30	0.30
		폭 력	5.20	6.38	5.01	6.39	0.19
부 인	직 업	건설적방법	12.41	3.53	12.82	3.84	0.71
		수동적방법	2.29	2.36	2.85	2.57	1.46
		회 피	1.70	2.82	2.52	3.19	1.74
		폭 력	0.81	2.05	1.28	2.55	1.28
	학 력	건설적방법	2.66	2.88	2.65	4.04	0.02
		수동적방법	2.59	2.60	2.64	2.46	0.11
		회 피	2.05	2.79	2.25	3.20	0.04
		폭 력	0.81	2.17	1.22	2.45	1.05
	수 입	건설적방법	2.58	4.14	2.70	3.44	0.21
		수동적방법	2.73	2.38	2.55	2.58	0.45
		회 피	2.18	2.74	2.20	3.27	0.05
		폭 력	1.05	2.43	1.16	2.28	0.30

*p<0.02

를 다루었던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동시에 부부간의 지위平等 또는 調和여부 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관련지어서 이루어졌던 연구들이 한결같이 남편의 부인에 대한 暴力 이외의 것들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셈이다.

2) 夫婦간의 地位不調和 類型에 따른 葛藤解決方法

남편과 부인의 葛藤解決方法이 직업, 학력,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 본 지위의 不調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 결과가 표 4-1,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네가지 방법 중 남편의 부인에 대한 暴力만이 직업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나 있다. 즉 남편의 직업이 부인의 직업보다 낮을 때나 극히 높을 때 등 부부의 직업 지위가 調和를 이루지 못할 때는 부부의 직업 지위가 조화를 이룰 때보다 남편은 신체적 暴力을 사용하여 葛藤을 解決하려는 경향을 높게 보이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는데 특히 남편의 직업 지위가 부인의 직업 지위보다 낮을 때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에서 부인과 남편

의 직업의 조합이 다른 부부의 그것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모두 調和롭지 못하다고 보지만 특히 부인의 직업 지위가 남편의 직업 지위보다 높은 婦人優位 職業不調和 類型이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며 또한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

는 社會的 통념 때문일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婦人보다 열등한 地位를 가지고 있는 男便이 婦人보다 우월한 地位를 지녀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적응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부적응의 결과로써 暴力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표 4-1. 夫婦간의 地位조화, 不調화에 의한 갈등해결방법
-남편의 경우-

	직업			학력			수입							
	부조화I	조화	부조화II	χ^2	부조화I	조화	부조화II	χ^2	부조화I	조화	부조화II	χ^2		
건설적 방법	Low	52.8(28)	50.0(35)	50.0(27)	0.12	58.4(45)	50.0(28)	56.8(25)	0.76	50.0(33)	51.5(35)	51.2(22)	0.03	
	High	47.2(25)	50.0(35)	50.0(27)		41.6(32)	50.0(28)	43.2(19)		50.0(33)	48.5(33)	48.8(21)		
	Total	100(53)	100(70)	100(54)		100(77)	100(56)	100(44)		100(66)	100(68)	100(43)		
수동적 방법	Low	52.8(28)	45.7(32)	50.0(27)	0.63	50.6(39)	51.8(29)	43.2(19)	0.85	51.5(34)	48.5(33)	46.5(20)	0.27	
	High	47.2(25)	54.3(38)	50.0(27)		49.4(38)	48.2(27)	56.8(25)		48.5(32)	51.5(35)	53.5(23)		
	Total	100(53)	100(70)	100(54)		100(77)	100(56)	100(44)		100(66)	100(68)	100(43)		
회피	Low	45.3(24)	61.4(43)	42.6(23)	4.67	57.1(44)	60.7(34)	61.4(27)	0.27	56.1(37)	54.4(37)	72.1(31)	3.87	
	High	54.7(29)	38.6(27)	57.4(31)		42.9(33)	39.3(22)	38.6(17)		43.9(29)	45.6(31)	27.9(12)		
	Total	100(53)	100(70)	100(54)		100(77)	100(56)	100(44)		100(66)	100(68)	100(43)		
폭력	Low	49.1(26)	68.6(48)	47.6(23)	9.31**	54.5(42)	66.1(37)	47.7(21)	1.45	59.1(39)	57.4(39)	39.5(17)	1.64	
	High	50.9(27)	31.4(22)	57.4(31)		45.5(35)	33.9(19)	52.3(23)		40.9(27)	42.6(29)	60.5(26)		
	Total	100(53)	100(70)	100(54)		100(77)	100(56)	100(44)		100(66)	100(68)	100(43)		

**p<0.01

표 4-2. 夫婦간의 地位조화, 不調화에 의한 갈등해결방법
-부인의 경우-

	직업			학력			수입							
	부조화I	조화	부조화II	χ^2	부조화I	조화	부조화II	χ^2	부조화I	조화	부조화II	χ^2		
건설적 방법	Low	60.4(32)	52.9(37)	48.1(26)	1.64	49.4(38)	57.1(32)	56.8(25)	1.02	50.0(33)	51.5(35)	51.2(22)	0.03	
	High	39.6(17)	47.1(33)	51.9(28)		50.6(39)	42.9(24)	43.2(19)		50.0(33)	48.5(33)	48.8(21)		
	Total	100(53)	100(70)	100(54)		100(77)	100(56)	100(44)		100(66)	100(68)	100(43)		
수동적 방법	Low	58.5(31)	60.0(42)	46.3(25)	2.62	55.8(43)	58.9(33)	50.0(22)	0.81	51.5(34)	48.5(33)	46.5(20)	0.27	
	High	41.5(22)	40.0(28)	53.7(29)		44.2(34)	41.1(23)	50.0(22)		48.5(32)	51.5(35)	53.5(23)		
	Total	100(53)	100(70)	100(54)		100(77)	100(56)	100(44)		100(66)	100(68)	100(43)		
회피	Low	52.8(28)	67.1(47)	48.1(26)	5.04	53.2(41)	58.9(33)	61.4(27)	0.87	56.1(37)	54.4(37)	72.1(31)	3.87	
	High	47.2(25)	32.9(23)	51.9(28)		46.8(36)	41.1(23)	38.6(17)		43.9(29)	45.6(31)	27.9(12)		
	Total	100(53)	100(70)	100(54)		100(77)	100(56)	100(44)		100(66)	100(68)	100(43)		
폭력	Low	67.3(35)	74.3(52)	57.4(31)	3.93	64.9(50)	70.9(39)	65.9(29)	0.55	59.1(39)	54.4(37)	48.8(21)	1.11	
	High	32.7(17)	25.7(18)	42.6(23)		35.1(27)	29.1(16)	34.1(15)		40.9(27)	45.6(31)	51.2(22)		
	Total	100(53)	100(70)	100(54)		100(77)	100(56)	100(44)		100(66)	100(68)	100(43)		

점에 대해 Yllo(1984)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夫婦간의 暴力의 발생은 女性的地位가 낮은 지역[洲]에서 婦人支配의인 家庭일 때 婦人구타가 가장 많이 발생함을 보고하여 그 社會의 일반적인 價値觀과 그 社會에 존재하는 家庭에서의 현실이 상위할 때 婦人에 대한 暴力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婦人에 대한 虐待와 權力 또는 地位 知覺등을 연결시켜 權力이나 地位가 夫婦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婦人에 대한 虐待가 유발될 수 있다는 先行 研究들의 結果(이명교 1985; 양은희 1985; 이영숙 1986; 전춘애 1989)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男便과 婦人의 地位를 교육수준과 직업지위로 각각 나누어 비교하여 夫婦의 教育 수준 및 職業 地位가 잘 調和되지 않을 때는 婦人에 대한 虐待 특히 暴力이 증가하는 경향이나 職業 地位의 不調和가 그러한 경향을 더욱 크게 나타낸다고 한 Hornung과 그의 동료들(1981)의 研究 結果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葛藤解決過程에서 婦인이 취하는 방식은 그 어느 것도 夫婦간의 地位 不調和에 의해 차이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은 婦人の 葛藤解決方法은 夫婦간의 地位 不調和와 관련지어 해석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임을 의미하며 이 점은 이전 研究結果(이영숙 1986)를 재확인해준다.

2. 地位상향지향성에 따른 地位 不調和와 葛藤解決方法과의 關係

男便의 婦人에 대한 暴力的 方法을 제외하고는 地位 不調和가 葛藤解決方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婦人の 地位 상향지향성을 통제해 본 結果 地位 상향지향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는 夫婦간의 地位 不調和와 葛藤解決過程에서 취하는 방식과의 관계가 무의미했으나 地位 상향지향성을 통제해 보니 그 관계가 의미있음을 표 5-1, 표 5-2, 표 5-3에서 볼 수 있다.

먼저 婦人の 地位 상향지향성이 높은 集團에서는 夫婦의 職業, 학력, 수입상의 地位가 調和를 이

루지 못할 때는 調和를 이룰 때에 비해 男便이 婦人에게 身體的 暴力으로 葛藤을 解決하려는 方法을 더 많이 사용함을 보여 주고 있으나 婦人の 地位 상향지향성이 낮은 集團에서는 그러한 傾向이 없다. 특히 不調和 類型 中에서도 男便優位不調和 類型에서보다 婦人優位不調和類型에서 身體的 暴力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地位 상향지향성 즉 자신의 地位를 일정 地位 이상으로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婦人은 다른 婦人들보다도 더 자신의 地位가 높기를 원하긴 하지만 한편 우리 社會에서는 자신의 地位가 다른 婦人들과 같은 수준의 地位 즉 보편화된 婦人の 地位와 비슷할 때 적응하기가 쉬우며 그렇지 않을 때 즉 男便의 地位가 자신의 地位보다 낮을 때는 오히려 더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의 地位와 무관하게 자신의 地位만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地位가 배우자의 地位보다 높을 때 가장 暴力이 적고 자신의 地位가 배우자의 지위보다 낮을 때 가장 暴力이 많아야 하는 結果가 나왔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예는 外國에서도 유사한 研究結果로서 보여 주고 있다. Jorgensen(1977)은 地位상승욕구를 통제하고 葛藤 빈도와 地位차이와의 關係를 研究하였는데 地位상승욕구가 적은 婦人은 夫婦간의 地位의 차이와 葛藤解決 빈도와 關係가 없었으나 地位상승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婦人은 자신의 地位가 男便의 地位보다 낮을 때 가장 많은 葛藤을 經驗하며 자신의 地位가 男便의 地位보다 높을 때 葛藤을 가장 적게 經驗한다고 보고함으로써 夫婦가 가장 적응을 못하는 것은 婦人の 地位가 男便의 地位보다 낮을 때라고 밝혔다. 이러한 두 結果의 차이는 社會에 따라 夫婦간의 地位關係를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社會에서 婦人の 지위를 재는 척도가 婦人 자신의 것이 아니라 男便의 것이기 때문에 地位 상향지향성이 높은 婦人이라 할지라도 男便의 地位가 자신의 地位보다 높을 때 暴力이 덜 사용되어 적응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반해, 外國에서는 結婚한 婦人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地位는 자기 자신의 것 이외에 그 어느 것으로도 상승될 수 없다

표 5-1. 부부간의 직업지위 조화·부조화에 의한 갈등 해결방법
- 지위상향지향성을 통제했을 경우 -

	건설적방법		수동적방법		회피		폭력	
	Low High Total	χ^2	Low High Total	χ^2	Low High Total	χ^2	Low High Total	χ^2
남편	지위상향지향성 부조화I	58.3(14) 41.7(10) 100(24)	1.75	54.2(13) 45.8(11) 100(24)	1.79	33.3(8) 66.7(16) 100(24)	45.8(11) 54.7(13) 100(24)	9.05**
	이높은 부조화II	40.6(13) 59.4(19) 100(32)		40.6(13) 59.4(19) 100(32)		56.3(18) 43.8(14) 100(32)	65.6(21) 34.4(11) 100(32)	
부인	지위상향지향성 부조화I	48.3(14) 51.7(15) 100(29)	0.70	51.7(15) 48.3(14) 100(29)	0.66	55.2(16) 44.8(13) 100(29)	51.7(15) 48.3(14) 100(29)	2.64
	이낮은 부조화II	57.9(13) 42.1(16) 100(38)		50.0(19) 50.0(19) 100(38)		65.8(25) 34.2(13) 100(38)	71.1(27) 28.9(11) 100(38)	
부인	지위상향지향성 부조화I	66.7(16) 33.3(8) 100(24)	1.96	41.7(10) 58.3(14) 100(24)	3.25	58.3(14) 41.7(10) 100(24)	65.2(15) 34.8(8) 100(24)	2.88
	이높은 부조화II	50.0(16) 50.0(16) 100(32)		50.0(16) 50.0(16) 100(32)		56.3(18) 43.8(14) 100(32)	65.6(21) 34.4(11) 100(32)	
남편	지위상향지향성 부조화I	55.2(16) 44.8(13) 100(29)	0.63	72.4(21) 27.6(8) 100(29)	0.18	48.3(14) 51.7(15) 100(29)	69.0(20) 31.0(9) 100(29)	1.51
	이낮은 부조화II	55.3(21) 44.7(17) 100(38)		68.4(26) 31.6(12) 100(38)		76.3(29) 23.7(9) 100(38)	81.6(31) 18.4(7) 100(38)	
	집단	45.5(10) 54.5(12) 100(22)		72.7(16) 27.3(6) 100(22)		59.1(13) 40.9(9) 100(22)	72.7(16) 27.3(6) 100(22)	

*p<0.05 **p<0.01

표 5-2. 부부간의 학력지위 조화·부조화에 의한 갈등해결방법

- 지위상향지향성을 통제했을 경우 -

	건설적방법		수동적방법		회피		폭력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남 편	부조화	67.7(21) 32.3(10) 100(31)	58.1(18) 41.9(13) 100(31)	51.6(16) 48.4(15) 100(31)	45.2(14) 54.8(17) 100(31)	7.32*	0.76	7.42*
	조화	40.0(12) 60.0(18) 100(30)	53.3(16) 46.7(14) 100(30)	56.7(17) 43.3(13) 100(30)	70.0(21) 30.0(9) 100(30)			
	부조화II	66.7(18) 33.3(9) 100(27)	37.0(10) 63.0(17) 100(27)	63.0(17) 37.0(10) 100(27)	37.0(9) 63.0(18) 100(27)			
	부조화I	52.2(24) 47.8(22) 100(46)	45.7(21) 54.3(25) 100(46)	60.9(28) 39.1(18) 100(46)	60.9(28) 39.1(18) 100(46)			
	조화	61.5(16) 38.5(10) 100(26)	50.0(13) 50.0(13) 100(26)	65.4(17) 34.6(9) 100(26)	61.5(16) 38.5(10) 100(26)			
	부조화II	41.2(7) 58.8(10) 100(17)	52.9(9) 47.1(8) 100(17)	58.8(10) 41.2(7) 100(17)	70.6(12) 29.4(5) 100(17)			
부 인	부조화I	48.4(15) 51.6(16) 100(31)	45.2(14) 54.8(17) 100(31)	38.7(12) 61.3(17) 100(31)	54.8(17) 45.2(14) 100(31)	1.26	3.07	1.97
	조화	53.3(16) 46.7(14) 100(30)	43.3(13) 56.7(17) 100(30)	60.0(18) 40.0(12) 100(30)	69.0(20) 31.0(9) 100(29)			
	부조화II	63.0(17) 37.0(10) 100(27)	29.6(8) 70.4(19) 100(27)	55.6(15) 44.4(12) 100(27)	51.9(14) 48.1(13) 100(27)			
	부조화I	50.0(23) 50.0(23) 100(46)	63.0(29) 37.0(17) 100(46)	63.0(29) 37.0(17) 100(46)	71.7(33) 28.3(13) 100(46)			
	조화	61.5(16) 38.5(10) 100(26)	76.9(20) 23.1(6) 100(26)	57.7(15) 42.3(11) 100(26)	73.1(19) 26.9(7) 100(26)			
	부조화II	47.1(8) 52.9(9) 100(17)	82.4(14) 17.6(3) 100(17)	76.6(12) 29.4(5) 100(17)	88.2(15) 11.8(2) 100(17)			

*p<0.05

표 5-3. 부부간의 수입지위 조화·부조화에 의한 갈등 해결방법
- 지위상향지향성을 통제했을 경우 -

	건설적방법		수동적방법		회피		복역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남 편	부조화I	39.4(13)	60.6(20)	100(33)	48.5(16)	51.5(17)	100(33)	48.5(16)	51.5(17)	100(33)	6.10*
	조화	50.0(19)	50.0(19)	100(38)	52.6(20)	47.4(18)	100(38)	52.6(20)	47.4(18)	100(38)	
	부조화II	64.7(11)	35.3(6)	100(17)	47.1(8)	52.9(9)	100(17)	17.6(3)	82.4(14)	100(17)	
	부조화I	60.6(20)	39.4(13)	100(33)	54.5(18)	45.5(15)	100(33)	69.7(23)	30.3(10)	100(33)	
부 인	부조화I	42.4(14)	57.6(19)	100(33)	42.4(14)	57.6(19)	100(33)	63.6(21)	36.4(12)	100(33)	1.56
	조화	57.9(22)	42.1(16)	100(38)	39.5(15)	60.5(23)	100(38)	54.1(20)	45.9(17)	100(38)	
	부조화II	70.6(12)	29.4(5)	100(17)	35.3(6)	64.7(11)	100(17)	58.8(10)	41.2(7)	100(17)	
	부조화I	66.7(22)	33.3(11)	100(33)	69.7(23)	30.3(10)	100(33)	84.8(28)	15.2(5)	100(33)	
남 편	부조화I	43.3(16)	46.7(14)	100(30)	43.3(13)	56.7(17)	100(30)	63.3(19)	36.7(11)	100(30)	0.03
	조화	53.3(16)	46.7(14)	100(30)	43.3(13)	56.7(17)	100(30)	63.3(19)	36.7(11)	100(30)	
	부조화II	42.3(11)	57.7(15)	100(26)	46.2(12)	53.8(14)	100(26)	53.8(14)	46.2(12)	100(26)	
	부조화I	42.4(14)	57.6(19)	100(33)	42.4(14)	57.6(19)	100(33)	63.6(21)	36.4(12)	100(33)	
부 인	부조화I	42.4(14)	57.6(19)	100(33)	42.4(14)	57.6(19)	100(33)	63.6(21)	36.4(12)	100(33)	0.06
	조화	57.9(22)	42.1(16)	100(38)	39.5(15)	60.5(23)	100(38)	54.1(20)	45.9(17)	100(38)	
	부조화II	70.6(12)	29.4(5)	100(17)	35.3(6)	64.7(11)	100(17)	58.8(10)	41.2(7)	100(17)	
	부조화I	66.7(22)	33.3(11)	100(33)	69.7(23)	30.3(10)	100(33)	84.8(28)	15.2(5)	100(33)	
남 편	부조화I	43.3(13)	56.7(17)	100(30)	43.3(13)	56.7(17)	100(30)	63.3(19)	36.7(11)	100(30)	0.03
	조화	53.3(16)	46.7(14)	100(30)	43.3(13)	56.7(17)	100(30)	63.3(19)	36.7(11)	100(30)	
	부조화II	42.3(11)	57.7(15)	100(26)	46.2(12)	53.8(14)	100(26)	53.8(14)	46.2(12)	100(26)	
	부조화I	42.4(14)	57.6(19)	100(33)	42.4(14)	57.6(19)	100(33)	63.6(21)	36.4(12)	100(33)	
부 인	부조화I	42.4(14)	57.6(19)	100(33)	42.4(14)	57.6(19)	100(33)	63.6(21)	36.4(12)	100(33)	0.06
	조화	57.9(22)	42.1(16)	100(38)	39.5(15)	60.5(23)	100(38)	54.1(20)	45.9(17)	100(38)	
	부조화II	70.6(12)	29.4(5)	100(17)	35.3(6)	64.7(11)	100(17)	58.8(10)	41.2(7)	100(17)	
	부조화I	66.7(22)	33.3(11)	100(33)	69.7(23)	30.3(10)	100(33)	84.8(28)	15.2(5)	100(33)	
남 편	부조화I	43.3(13)	56.7(17)	100(30)	43.3(13)	56.7(17)	100(30)	63.3(19)	36.7(11)	100(30)	0.03
	조화	53.3(16)	46.7(14)	100(30)	43.3(13)	56.7(17)	100(30)	63.3(19)	36.7(11)	100(30)	
	부조화II	42.3(11)	57.7(15)	100(26)	46.2(12)	53.8(14)	100(26)	53.8(14)	46.2(12)	100(26)	
	부조화I	42.4(14)	57.6(19)	100(33)	42.4(14)	57.6(19)	100(33)	63.6(21)	36.4(12)	100(33)	
부 인	부조화I	42.4(14)	57.6(19)	100(33)	42.4(14)	57.6(19)	100(33)	63.6(21)	36.4(12)	100(33)	0.06
	조화	57.9(22)	42.1(16)	100(38)	39.5(15)	60.5(23)	100(38)	54.1(20)	45.9(17)	100(38)	
	부조화II	70.6(12)	29.4(5)	100(17)	35.3(6)	64.7(11)	100(17)	58.8(10)	41.2(7)	100(17)	
	부조화I	66.7(22)	33.3(11)	100(33)	69.7(23)	30.3(10)	100(33)	84.8(28)	15.2(5)	100(33)	

*p<0.05

고 생각하기 때문에 地位상승욕구가 강한 婦人は 자신의 地位가 男便의 地位보다 높을 때 적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나오게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夫婦간의 職業, 學歷, 收入상의 不調和 中에서 男便의 收入이 婦人の 그것보다 낮을 때 위와 같은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婦인이 취업했을 때의 收入이 男便보다 높으면 학력상의 차이등 다른 어떤 地位상의 차이보다 男便이 더욱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그러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한편 葛藤解決過程에서 사용한 回避의 方法은 職業地位상의 차이에 의해서만 사용 정도가 다르다고 나타났다. 職業地位 不調和에 의한 回避의 方法의 차이는 地位 상향지향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차이가 무의미했으나 地位 상향지향성을 통제해 본 결과 地位 상향지향성이 높은 婦人の 家庭에서 婦人優位不調和 類型일 때 男便優位不調和 類型에서보다 男便이 回避하는 方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研究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相異한 測定 道具 사용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回避라는 용어 대신 攻擊 또는 심리적 虐待, 職業地位 대신 지위지각 또는 權力關係로서 살펴보아 婦人 支配型 또는 婦人 우위형에서 심리적 虐待 또는 攻擊(언어적 공격)이 심하다는 이전 研究結果(이영숙 1986; 전춘애 1989)와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職業地位 뿐 아니라 教育 수준상의 차이로 볼 때 男便 우위일 때 攻擊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Hornung과 그의 동료들(1981b)의 研究結果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며, 職業地位의 차이에 의해 전쟁의 차이가 없다는 김정옥(1985)의 결과와는 差異를 보인다.

職業地位의 不調和에 의해 차이를 보인 회피와는 달리 건설적 方法은 地位 상향지향성을 통제했을 때 地位 상향지향성이 높은 婦人の 가정에서 학력 不調和일 때는 학력이 調和될 때 보다 男便의 사용빈도가 적음을 볼 수 있다. 夫婦간의 學歷 不調和중에서도 婦人優位不調和일 때가 男便優位

不調和일 때보다 男便은 건설적 方法을 더 적게 사용함을 볼 수 있다. 건설적 方法의 사용상의 차이는 學歷 外에 職業地位나 수입상의 地位 不調和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건설적 方法이 다른 葛藤解決方法에 비해 教育的 수준이 유사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건설적 方法은 身體的 暴力이나 回避등 파괴적 方法과는 달리 對話, 妥協등 男便 또는 婦人 혼자서 진행시키기 힘든 方法이기 때문이다. 學歷差에 따라 建設적 方法을 사용하는 이러한 경향을 葛藤解決方法 中 回避 또는 暴力을 사용하는 경향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地位 不調和일 때 回避, 暴力등 파괴적 方法을 많이 사용하고 대화를 하는 등의 建設적 方法은 적게 사용하였으며 지위 不調和 中에서도 婦人優位不調和類型에서 파괴적 方法을 더 많이 사용한 반면 建設적 方法은 보다 덜 사용하는 등 동일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葛藤解決方法 中 수동적 方法은 地位不調和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수동적 方法은 夫婦의 地位와 관련되어 차이나게 사용되는 方法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婦人の 葛藤解決方法은 地位 상향지향성을 통제했을 때에도 夫婦간의 地位不調和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地位 상향지향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婦人の 葛藤解決方法은 이전의 研究에서 밝혀진 것처럼 夫婦간의 地位關係와 관련지어 解釋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V. 要約 및 結論

본 研究는 夫婦간의 葛藤解決은 어떠한 方法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夫婦간의 지위 不調和와 어떻게 관련 맺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夫婦간의 葛藤解決方法은 建設적 方法, 수동적 方法, 回避, 身體的 暴力등 네가지 類型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建設적 方法은 男便과 婦人の 사용빈도가 비슷했으나 身體的 暴力은 男便이 77.

6%, 婦人이 33.0% 사용함으로써 男便이 婦人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

둘째, 夫婦간의 葛藤解決方法 중 男便의 婦人에 대한 暴力만이 地位 調和여부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葛藤解決方法으로 나타났다. 즉 地位 不調和인 夫婦 사이에서는 葛藤解決時 男便이 婦人에게 暴力을 많이 사용하며 地位 調和인 夫婦 사이에서는 男便이 婦人에게 暴力을 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夫婦간의 葛藤解決方法 중 男便의 婦人에 대한 폭력만이 地位不調和 類型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葛藤解決方法으로 나타났다. 즉 婦人 優位職業不調和 類型에서 男便이 婦人에게 暴力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男便優位職業不調和 類型에서 그 다음이며, 男便과 婦人の 職業 지위가 調和를 이룰 때 暴力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이다.

넷째, 婦人の 地位 상향지향성을 통제했을 때 地位 상향지향성이 높은 婦人の 家庭에서만 男便의 葛藤解決方法이 地位 不調和 類型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婦人の 地位 상향지향성이 높은 경우에는 夫婦의 職業 지위상으로 볼 때 男便이 사용하는 回避나 身體的 暴力은 婦人優位職業調和 類型, 男便優位職業不調和 類型, 男便의 職業과 婦人の 職業이 調和를 이루는 類型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 지위나 수입 지위로 볼 때는 身體的 暴力의 사용 정도가 職業 地位와 같은 경향이였다. 그러나 夫婦의 學歷 地位상으로 볼 때 男便이 사용하는 建設的 方法은 身體的 暴力과는 반대의 방향 즉 夫婦의 學歷이 조화를 이루는 類型, 男便優位學歷不調和 類型, 婦人優位學歷不調和 類型 순서로 많이 사용함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부간의 지위 不調和는 葛藤解決時 이성적 또는 건설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데 장애 조건이 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婦人の 地位 상향지향성이 높은 집단에서, 婦人優位不調和 類型일 때, 職業地位不調和 類型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夫婦간의 葛藤解決을 破壞的 方法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은 夫婦간의 地位가 조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夫

婦간의 地位 調和를 地位平等 개념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夫婦간의 유형이라고 본 점과 婦人優位不調和 類型에서 男便優位不調和 類型에서보다 暴力을 더 많이 사용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夫婦간의 葛藤解決을 破壞的인 方法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으로서의 夫婦의 地位關係는 婦人の 地位가 男便의 地位보다 높을 때 보다는 婦人の 地位가 男便의 地位와 동일하거나 또는 약간 낮은 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사회의 男女平等思想이 家庭에 어느 정도 유입된 점을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아직까지도 夫婦간의 地位關係는 男便이 優越해야 된다는 差別的인 생각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調和로운 夫婦關係에 대한 하나의 정보를 줌으로써 配偶者 선택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 덧붙여서 調和로운 부부간의 地位關係는 아직까지도 男便이 優位에서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夫婦關係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깨우쳐 준 점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남녀 差別的인 價値觀은 夫婦간의 葛藤解決을 身體的 暴力에 의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子女에게도 男女에 대한 差別的인 價値觀을 전달하게되어 民主的인 家庭 形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표본 선정이 전북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고, 연구 성질상 질문 내용이 私的인 영역에 관한 것이어서 응답의 진실성이 우려되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경화 : 아내 虐待의 영향 변인에 대한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 2)金正玉 : 도시부부의 갈등해결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2) : 91-110, 1985
- 3)金正玉 :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嶺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87

- 4) 김양희 : 한국 도시인의 가족 葛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5) 송영자 : 부부간의 葛藤表出方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6) 양은희 : 도시부부의 葛藤解決表出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 7) 이명교 : 도시부부의 권력구조와 葛藤解決表出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 8) 이영숙 : 부부간의 폭력과 그 영향. 군산대학 논문집 9 : 389-401, 1984
- 9) 이영숙 : 한국 도시 가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부인학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10) 전춘애 :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7(3) : 133-146, 1989
- 11) 홍두승 : 경제발전과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1983
- 12) Ball M : *Issues of violence in family casework. Social Casework* 58 : 3-12, 1977
- 13) Browning J & Donald D : *Assessment of wife assault with the conflict tactics scale : Using couple data to quantify the differential reporting effe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 375-379, 1986
- 14) Brutz JL & Ingoldsby BB : *Conflict resolution in Quak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 21-26, 1984
- 15) Carmines EG & Zeller RA :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Beverly Hills : Sage Pub, 1979*
- 16) Dobash RE & Dobash RP : *Wives : The appropriate victims of marital violence. Victimology* 2 : 426-442, 1977-78
- 17) Edleson JL & Mary PB : *Gender differences in reporting of battering incidents. Family Relations* 35 : 379-382, 1986
- 18) Gelles RJ : *Abused wives : why do they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 659-668, 1976
- 19) Goode WJ :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624-636, 1971
- 20) Hornung CA & Nccullough BC : *Status relationships in dual-employment marriages :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125-141, 1981a
- 21) Hornung CA, Mooullough BC & Sugimoto T : *Status relationships in marriage : risk factors in spouse ab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675-692, 1981b
- 22) Jones E & Gallois C : *Spouses' impressions of rules for communication in public and private marital confli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 957-96, 1989
- 23) Jorgensen SR : *Social class heterogamy, status striving and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 A partial replication and revision of Pearlin's contingency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 653-661, 1977
- 24) Jorgensen SR :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 Co, 1986*
- 25) Kumagai F : *Social class, power and husband-wife violence in Japa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0 : 91-105, 1979
- 26) Kumagai F & O'donoghue G : *Conjugal power and conjugal violence in Japan and U.S.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9 : 211-221, 1978
- 27) Martin D : *Battered wives. Glide Pub, 1976*
- 28) O'Brien JE : *Violence in divorce pron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692-698, 1971
- 29) Pearlin LI : *Status inequality and stress in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 344-357, 1975
- 30) Snell JE, Rosenwald RJ & Robey A : *The wife-beater's wif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1 : 105-109, 1964
- 31) Stinett N, Walters J & Kaye E :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Mac Millan Pbu. Co,*

- 1986
- 32) Straus MA :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 75-88, 1979
- 33) Straus MA & Hotaling GT : *The social causes of husband-wife violence*. *The Univ. of Minnesota Press*, 1980
- 34) Straus MA, Gelles RJ & Steinmetz SK : *Behind closed doors :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Anchor Press*, 1980
- 35) Yllo K : *The status of women, marital equality, and violence against wives : a contextu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Issues* 5 : 307-320, 1984. Thompson L & Walker AJ : *Gender in families :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 845-871, 1989에서 재인용
- 36) 熊谷文枝 : 夫婦의 葛藤解決表出過程(1)－日・印・米y 比較調査－. *社會學評論* 117 : 36-50, 1979